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 이슈브리프

유가 급락과 전망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및 당면과제

아세안의 스마트시티가 주목받는 이유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 이슈브리프

유가 급락과 전망 .....	1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및 당면과제 .....	4
아세안의 스마트시티가 주목받는 이유 .....	7

##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	11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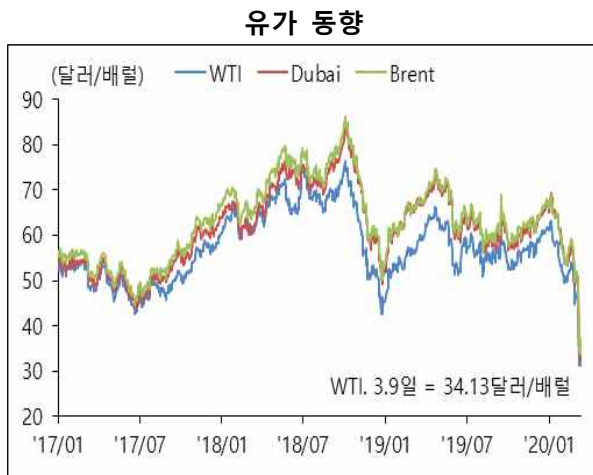
# 유가 급락과 전망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mgk101@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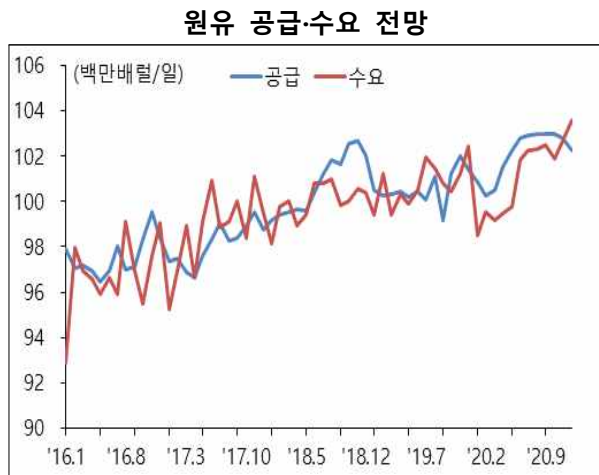
- ◆ '20.3.9일 유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원유 수요 감소 가운데, "OPEC+비OPEC"의 감산 협상 실패로 유가 급락
- ◆ 미국 셰일가스 업계는 원유 감산 협상 불발, 코로나 사태 확산 등으로 원유 수요 감소 및 가격 하락으로 신용위험이 급증
- ◆ 코로나19의 팬더믹 선언(3/11), 사우디-러시아간 낮은 감산 합의 가능성, 미국의 수요 위축 등으로 유가는 상당기간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

## □ 원유 수요 감소 가운데 "OPEC+비OPEC"의 감산 협상 실패로 유가 급락

- '20.3.9일 유가(WTI)는 31.13달러/배럴로 3.6일 대비 24.6%로 급락
  - 유가(달러/배럴) : 61.18(1.2일) → 50.11(2.1일) → 31.13(3.9일)\*
  - \* 3.9일 유가는 1991.1월 걸프전 이후 최대 하락폭이며, '16.2.19일(29.64달러/배럴) 이후 가장 낮은 수준



자료 : Bloomberg



자료 : EIA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영향으로 각 기관들은 올해 세계 원유 수요 감소를 전망

### 원유 수요 전망

(단위 : 백만배럴/일)

	변경 전	변경 후	조정량
OPEC(2월)	122	99	△23
EIA(3월)	103.2	101.1	△2.1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Mar. 2020

- 3/6일 OPEC+비OPEC 정례회의에서 감산 협상\* 실패, 사우디는 즉각적으로 가격 인하 및 증산 결정\*\*

\* 기존 일 120만배럴에서 → 일 150만배럴 '20년말까지 감축

\*\* 생산량 970만배럴 → 1,230만배럴, 판매가격은 6~8달러 인하

- '17년 이후 사우디와 러시아가 함께 생산량 감산을 해왔으나, 최근 러시아가 감산 연장에 반대

· 러시아는 감산에 따른 유가 부양이 결국 미국 셰일 업계의 이익으로 판단\*

\* 미국의 원유 생산량(백만배럴/일) : 16.20('16)→16.59('17)→ 16.97('18)→16.56('19)

### □ 수요감소 및 유가 하락으로 미국 셰일가스 업계 신용위험이 급증

- 미국 셰일가스의 원유 생산량은 19.51백만배럴/일로 확대되었으며, 손익분기점 30~50달러 선으로 알려짐

- 원유(셰일오일 포함) 생산량은 '17년 15.65백만배럴/일 → '18년 17.89백만배럴/일 → '19년 19.51백만배럴/일로 증가

- 3/3일 미국 FRB가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확산되면서 에너지 하이일드 채권의 조달위험이 급증

- 유가가 손익분기점을 하회할 경우 셰일업체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되며, 미국 에너지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는 3/12일 연말대비 10.53%p 상승한 17.27%에 육박 (전업종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는 3/12일 7.40%로 연말대비 3.47% 상승)

- 미국 S&P 500 에너지업종 지수도 3/13일 현재 연말 대비 51.4%가 급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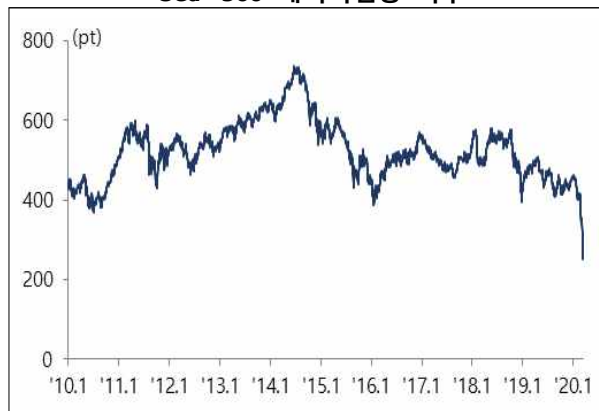
- 에너지산업의 불안이 미 회사채 시장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모니터링이 필요

에너지 하이일드 채권 스프레드



자료 : Bloomberg

S&P 500 에너지업종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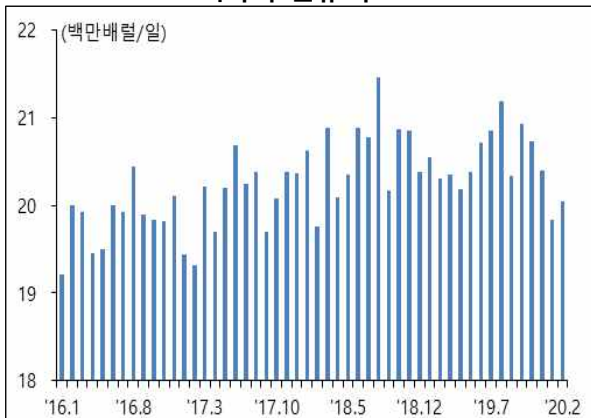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 코로나19의 팬더믹 선언(3/11)으로 유가는 상당기간 반등 가능성이 높지 않을 전망

- 3/13 현재 유럽의 확진자가 3만명에 달하고, 미국도 확진자가 1,700명에 육박하여 23개 주에서 비상사태를 선포
  - 유럽 확진자 : 이탈리아 15,113명, 스페인 3,146명, 프랑스 2,876명, 독일 2,745명 등
  - 미국의 비상사태 선포 주(州) : 워싱턴, 캘리포니아, 뉴욕, 플로리다, 켄터키, 메릴랜드, 유타, 오리건 등
- 사우디와 러시아간 감산 합의 가능성이 당분간 높지 않은 가운데, 미국의 수요가 위축되고 재고량이 증가될 경우 전세계 원유는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 가능
  - 미국의 원유 수요(백만배럴/일)는 20.38('18.12)→20.39('19.12)→20.29('20.3)
  - 미국의 원유 재고량(백만배럴) : 1,264.1('18.12)→1,289.0('19.12)→1,280.4('20.3)
  - 채굴 과정상 일단 증산 개시시 단기간 감산이 어렵고, 주요 산유국들도 재고 비용보다 M/S 확대 전략을 취할 가능성

미국의 원유 수요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Mar. 2020

미국 원유 재고량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Mar. 2020

- EIA가 3/11자로 2020년 2분기 유가 전망을 배럴당 31.72달러로 하향 조정했으나, 코로나 사태가 심화되고 있어 유가 추가 하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
  - 일부 IB들은 2분기 유가가 30달러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

20년 유가 전망

(단위 : 달러/배럴)

	'18	'19	'20				평균	'21
			1Q	2Q	3Q	4Q		
WTI	65.06	57.02	46.35	31.72	35.00	40.00	38.19	50.36
Brent	71.19	64.37	51.80	36.72	40.00	45.00	43.30	55.36

자료 : EIA, 'Short-Term Energy Outlook', Mar. 2020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및 당면과제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권혁성 (gurtjd408@gmail.com)

- ◆ 국내 사회적금융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자금모집,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금융상품 개발 등 사회적금융 중개업무를 하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중요도 증가
- ◆ 이에 사회적금융 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운영 투명성 문제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상품 정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표준화된 평가모델 구축 필요

## □ 전 세계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중요과제로 삼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금융은 매우 중요

- '사회적경제기업'은 일자리 창출, 소득 양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및 조직으로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으로 구분됨

### 국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기업 유형	소관 부처	목적	'17년	'18년	증가율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서비스 제공	1,877개	2,122개	13.05%
협동조합	기획재정부	조합원 권익향상, 지역사회 공헌	12,290개	14,465개	17.69%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역환경 개선, 지역공동체 활성화	1,442개	1,497개	3.81%
자활기업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수급권자 등의 자활 지원	1,092개	1,211개	10.89%
합계			16,701개	19,295개	15.53%

자료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 이에, '사회적금융'이란 대출, 투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재무적 이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

###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민간은행 지원 현황

(단위 : 억 원)

구분	대출	출자	기부·후원	제품구매	기타*	계
사회적기업	2,922.8	5.3	13.4	38.5	6.8	2,987(87.2%)
협동조합	273.3	-	4.0	0.5	-	278(8.1%)
마을기업	137.7	-	0.05	0.4	-	138(4.0%)
자활기업	20.9	-	0.05	0.3	-	21(0.6%)
계	3,355(98.0%)	5(0.2%)	17(0.5%)	40(1.2%)	7(0.2%)	3,424(100.0%)

자료 :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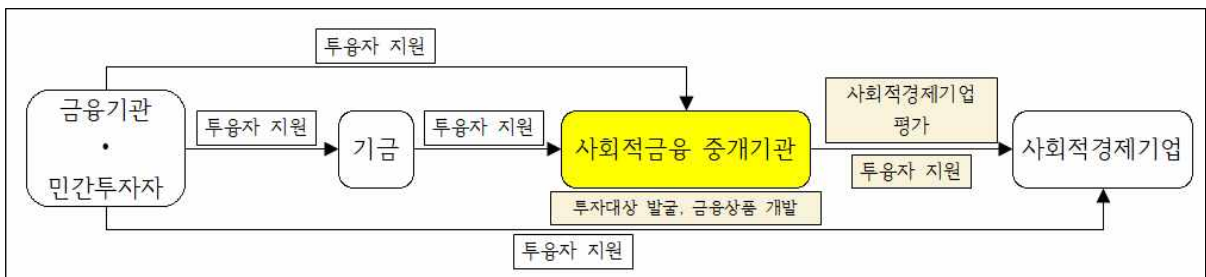
\* 기타: 컨설팅, 행사 개최 등 간접적 자금지원

□ 특히,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사회적금융의 자금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18.2월 정부는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며, 특히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필요성 강조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은 자금 공급자(금융기관, 민간투자자)와 수요자(사회적경제기업) 사이에서 중개업무\*를 담당

\* 사회적금융상품 개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자금공급 등 사회적금융 수요-공급 매개체로서 역할 수행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업무



- 국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자금 지원 방식은 대출 또는 투자로 구분 가능함

국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19)

	대출 중심	투자 중심
기관 수	19개	22개
기관 유형	사단법인, 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재단법인, 주식회사, 자산운용사
지원대상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임팩트기업
특징	금융지원, 성장지원, 교육 및 복지 지원	모태펀드, 사모펀드를 조성하여 출자
상품 예시	2020 서울형 마이크로크레딧**	한국성장금융의 사회투자펀드

자료 : 서민금융진흥원(2019),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현황" 재구성

\* 소셜벤처: 혁신적인 기술이나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업  
 \*\* 마이크로크레딧: 자활 의지를 가지고 있는 빈민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무담보 소액대출제도

□ 국내 사회적금융 중개업무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행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운영 방식의 개선 필요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운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 마련 필요
    - 일반 금융회사의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고 있으나,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경우 법령의 미비로 운영 투명성 문제 상존
- \* 상법,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경우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표준화·고도화된 평가모델 도입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 불투명성과 정보비대칭 문제로 인한 자금지원 적정성 문제 발생 가능한 바, 체계적인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델 도입 필요
  - 이에,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금융 활성화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델을 구축하고 자금지원에 활용 예정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경제기업\* 평가모형 측정지표

	영역(가중치)	측정지표
사회적가치 등급 (70%)	기업 철학(30)	기업미션의 사회적 가치, 사업계획의 적절성, 기업가 정신
	참여/배려 및 연대(25)	의사결정의 적절성, 구성원 처우노력, 외부기관 협력 및 연대
	사회적가치지향(30)	사업활동의 사회적 지향
	사회환원(15)	기업운동을 통한 사회환원 노력
금융타당성 등급 (30%)	경영역량(15)	대표자 역량
	교육(10)	법정교육 노력, 직무교육 노력
	지속가능성(25)	사업경쟁력, 판매/홍보 활동의 효율성
	재무관리역량(50)	매출액증가율, 이자보상배율, 차입금의존도 자금조달력, 자산건전성

자료 :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기업평가시스템 최종보고회 (2019.10.29.)" 재구성

\* 협동조합 외 모든 사회적경제기업에 해당

□ 또한, 사회적금융의 자금공급자와 수요자가 효율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비대면 플랫폼 활성화 필요

- 사회적경제기업이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의 금융상품을 쉽게 탐색·선택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필요
  - 중소기업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 기업마당\*에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정보를 제공하나 금융상품 정보는 부족
  - \* 기업마당(Bizinfo):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중소기업 종합지원 대표브랜드로서, 복잡하고 찾기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사업정보를 한곳에 모아 서비스를 제공

# 아세안의 스마트시티가 주목받는 이유

KDB미래전략연구소 산업기술리서치센터  
김훈섭 (hskim10@kdb.co.kr)

- ◆ 아세안 국가들은 도시인구집중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위하여 스마트시티를 적극적으로 도입중임
- ◆ 우리 정부는 신(新)남방정책의 하나로 아세안 지역의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형 스마트시티(K-SmartCity) 모델을 수립하고 정부차원에서 아세안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 아세안 국가들은 스마트시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면으로 스마트시티 개발을 위한 노력을 지속

- 아세안 지역은 급속한 도시화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를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이며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마트시티를 적극 개발중
  - 늘어나는 인구에 비해 도시가 부족하고 효율성이 낮은 기반시설, 환경 오염, 슬럼화로 인한 범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또한,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산업화,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인구의 도시 집중화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 \* UN 경제사회국 인구부(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는 '15-'20년 아세안 전체의 인구증가율이 1.02% 수준일 것에 비해, 도시인구증가율은 2.21% 수준으로 예측
    - UN(United Nations)은 아세안의 도시 인구 비중이 '14년 47%에서 '30년 56%, '50년 67%로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
- 아세안은 「스마트시티 네트워크(ASEAN Smart City Network, ASCN)\*」를 구축하는 등 국가간 격차를 줄이고 자국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
  - \* 회원국 간 협력을 촉진하고, 민간기업과 함께 투자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하며, 아세안 외부 파트너들의 지원을 확보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
  - 아세안의 경제 통합과 성장의 주요 화두인 연계성의 확대와 더불어 아세안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를 결성('18.4월)
  - 아세안 10개국의 26개 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지정하고 「아세안 스마트시티 프레임워크」를 채택('18.11월)
  - 다만, 스마트시티의 개발형태는 국가별·도시별로 상이\*
    - \* 중점개발분야에 따라 Smart Connectivity, Smart Governance, Smart Services, Smart Automation, Smart Health, Smart Mobility 등으로 구분됨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시범도시 현황

국가명	도시명	국가명	도시명	국가명	도시명
Brunei	Bandar Seri Begawan	Malaysia	Johor Bahru	Singapore	Singapore
	Battambang		Kuala Lumpur	Thailand	Bangkok
Cambodia	Phnom Penh		Kota Kinabalu		Chonburi
	Siem Reap		Kuching		Phuket
Indonesia	Makassar	Myanmar	Nay Pyi Taw	Vietnam	DaNang
	Banyuwangi		Mandalay		Hanoi
	DKI Jakarta		Yangon		HoChiMinh
Laos	Luang Prabang	Philippines	Cebu City		[총 10개국 26개 도시]
	Vientiane		Davao City		
			Manila		

자료 : Government of Singapore(2019)

□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은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나, 향후 10년간 가파른 성장이 예상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시장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23년 6,172억달러(약 692조원) 규모로 성장(연평균성장률 18.4%)이 전망됨(Markets and Markets, '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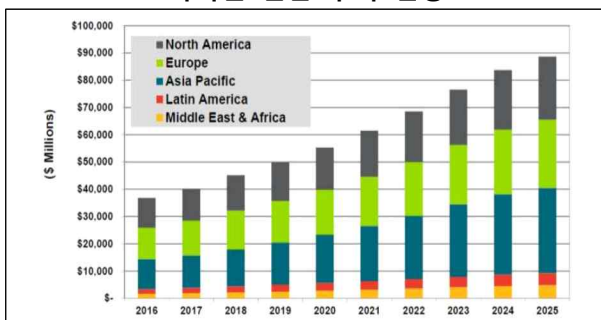
시장조사 기관별 시장 전망

시장조사기관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전망
Markets and Markets ('19.1)	· '18년 3,080억달러에서 '23년 6,172억달러로 성장
Navigant Research ('17.4)	· '17년 935억달러에서 '26년 2,252억달러로 증가 전망
Frost & Sullivan ('17.10)	· '25년까지 2.1조달러(약 2,400조원)로 성장 전망

자료 : 국토교통부(2019.6),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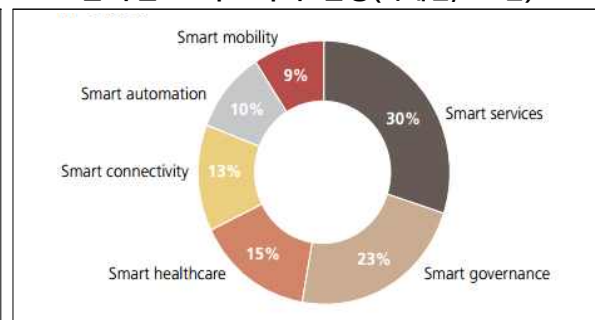
- '19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을 주도\*할 전망  
\*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 내 아시아-태평양 시장 비중(%) : ('16) 28.6 → ('25) 33.9
- 아세안지역은 전자결제 등 스마트서비스, 스마트그리드(전기, 상·하수 등) 등 스마트정부와 같이 공공분야가 강화된 스마트시티의 수요가 높음

지역별 연간 수익 전망



자료 : 국토교통부(2019.6),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분야별 스마트시티 전망(아세안, '25년)



자료 : UBS(2019), "Smart Cities"

□ 최근 한국 정부는 신(新)남방정책과 연계하여 아세안 지역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2019 ASEAN-Republic of KOREA Commemorative Summit)」를 통해 아세안 10개국 26개 도시에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 진출을 추진
  - \* 도시건설 노하우, 세계 최고 수준의 ICT 솔루션 및 법제도 등이 종합적으로 결합된 패키지 형태
  - 정부는 세종시(5-1생활권)와 부산시(에코 델타시티)를 국가 시범 스마트시티로 선정하고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을 창출(18.7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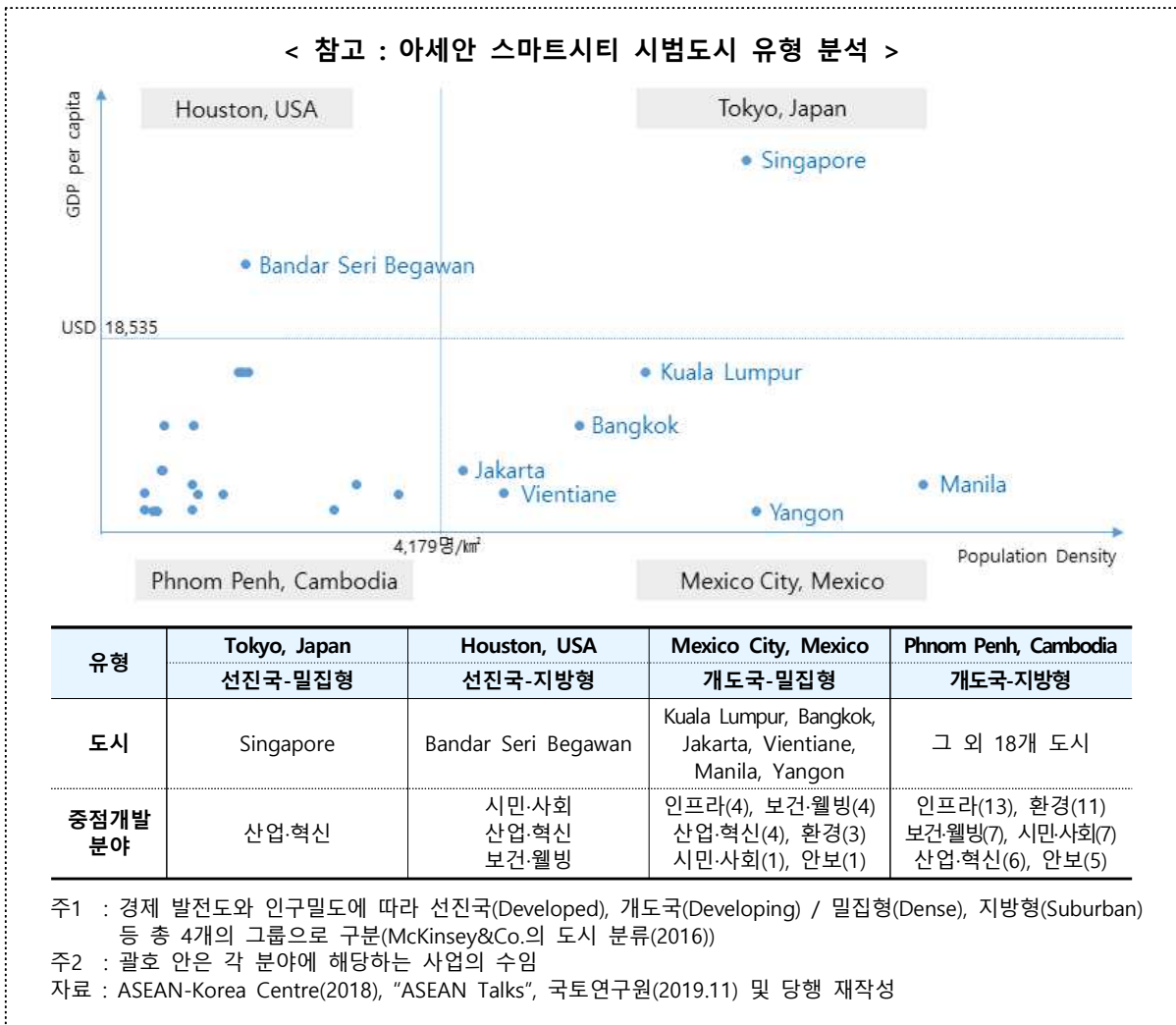
세종시(5-1생활권)		부산시(에코 델타시티)	
사업명	세종 5-1생활권 국가시범도시	사업명	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사업기간	2017.7~2021.12	사업기간	2019~2023
사업면적	2,741천㎡(83만평)	사업면적	2,191천㎡(66만평)
계획인구	22,585만(9,000세대)	계획인구	8,500만(3,380세대)
총사업비	1.5조원(공공 0.95, 민간 0.55)	총사업비	2.2조원(공공 1.45, 민간 0.76)
사업주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업주체	한국수자원공사(K-Water)
주요 콘텐츠	모빌리티(자율·공유차) + 헬스케어(스마트 응급·진료·관리 등)	주요 콘텐츠	물관리(수변공간 활용 물 특화 도시) + 로봇(복지·생활관련 등)

자료 :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http://smartcity.go.kr>

- 아세안 국가들과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에 국가별·도시별 맞춤형 모델을 융합한 스마트시티를 수출하기 위하여 정부간 협력체계 마련(19.11월)
  - 인도네시아와 수도이전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체결
  -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협력 사업 추진
  - 싱가포르, 브루나이와 양자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
- 국토교통부는 「한-아세안 스마트시티 장관회의」를 통해 아세안 국가들과 스마트 시티 협력 확대를 위한 4가지 방안을 제시(19.11월)
  -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를 구축하고 종합계획 수립 또는 사전타당성 조사 등을 지원하여 본 사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협력
  - 총 1.5조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 펀드\*」를 조성하고 이중 4,000억원 내외를 아세안 스마트시티 개발사업에 투자
    - \* LH, 도로공사, 철도공사, KIND 등 공공투자자(6,000억원), 민간투자자(9,000억원) 등(예정)
  - 아세안 4개국에 「스마트시티 글로벌 협력센터」를 설치, 유망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발굴하고 한국과 아세안 기업 간 또는 정부 간 네트워크를 강화
  -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한국의 도시개발 경험과 정보통신기술 솔루션을 공유

□ 아세안 스마트시티 협력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별·도시별 특성을 고려하고 수혜자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모델 개발이 필수

- 도시별 유형·특성·수요에 맞춘 차별화된 접근 전략이 필요
  - 상업성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민간기업 등 외부 파트너의 협력 확보
  - 아세안 국가의 수준에 맞는 적정 기술 적용
  - 다양성이 큰 아세안 도시들의 특화된 수요를 반영
- 스마트시티의 혜택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 가능하도록 개발
  - 도시 관계자 및 시민의 오너십과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적합한 스마트시티 유형을 찾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유도
  - 디지털 등 신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소외층에 대한 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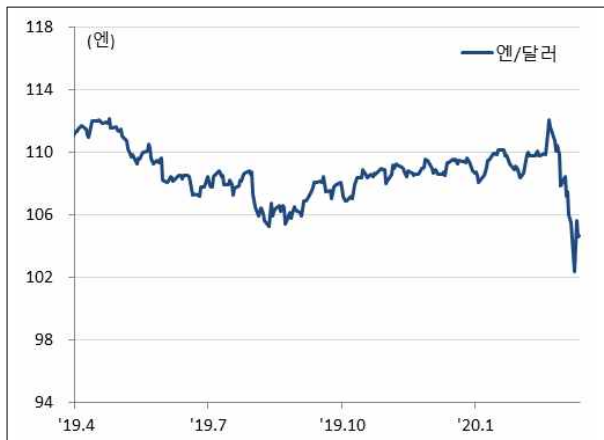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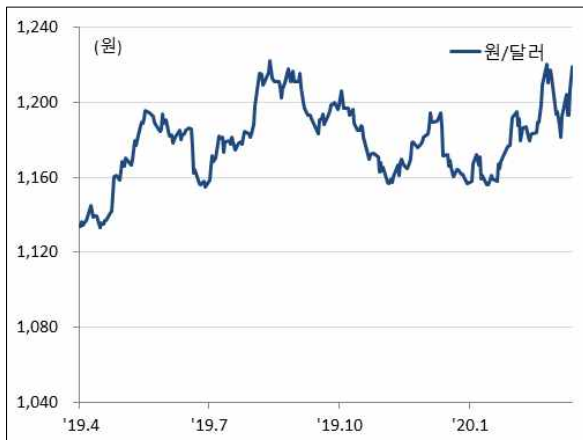


#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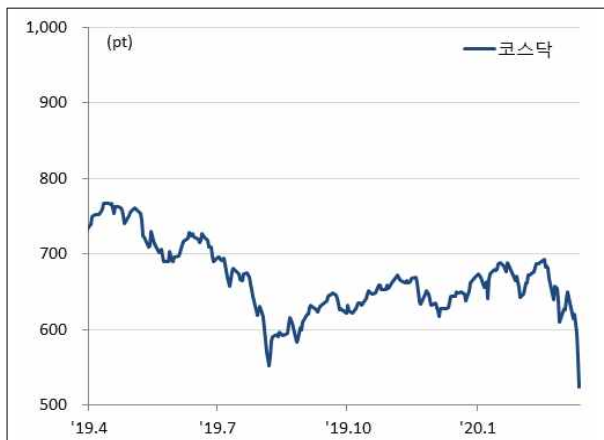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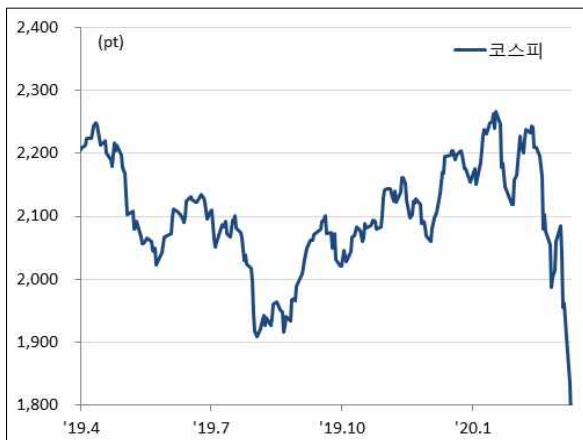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1.149% (7.1bp ↑), 신용스프레드 43.3bp (2bp ↑)



**환율** 원/달러 1,219.3원 (27원 ↑), 엔/달러 104.64엔 (0.85엔 ↓)



**주가** 코스피 1,771.44pt (13.17% ↓), 코스닥지수 524pt (18.47% ↓)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신용스프레드와 엔/달러는 목요일 증가 기준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870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http://rd.kdb.co.kr), [kdb.co.kr](http://kdb.co.kr)  
**문의**                787.7826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